

‘동현호’ 어선사고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

- 해양수산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신속 지시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7일 03시 53분경 경북 구룡포 동방 약 66해리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 ‘동현호(9.77톤)’ 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“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선박수색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, 인근 선박에 수색 지원을 요청하라” 라고 지시하였다.

현재, 승선원 6명 중 1명을 구조하고,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4. 3.17.(일) 02시 44분경 경북 구룡포 동방 66해리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 ‘동현호’에서 VHF 조난신호 발생

* 총톤수 9.77톤, 경북 구룡포 선적, 6명 승선

△ (04시 20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경계” 발령

△ (05시 00분 현재 피해현황) 6명 중 1명 구조, 5명 실종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윤상훈 (044-200-5550)
	어선안전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손외학 (044-200-5526)